

군사독재에 성난 표심 13代 이후 몰표... 시대정신 '방향타'

역대 대선과 호남

'6·10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도입된 1987년 제13대 대선부터 호남은 진보개혁세력의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호남(광주·전남북)이 처음부터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지는 않았다. 애초 보수정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주기라도 하는 등 표를 나눠주는 경향이 있었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계속되면서 호남 표심은 변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의 호남 확대에 이 같은 변화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직선제 초기=1956년 실시된 3대 대선에서 호남은 자유당 이승만 후보에게 54.0%, 무소속 조봉암 후보에게 26.3%의 득표율을 안겼다.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뇌일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1960년 4대 대선은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서거함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후보가 됐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처음 실시한 1963년 10월 5대 대선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 등이 각각 출마했다. 이때 호남은 박 후보

15대 DJ 93% 지지 정권교체 성공

18대 문재인 88% 득표하고도 패배

5대 박정희 후보 49.3% 지지하기도

에게 49.3%, 윤 후보에게 34.6%의 표를 줬다. 1967년 5월 실시된 6대 대선에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신민당 윤보선 후보와 재대결을 펼쳐 승리했다. 이 선거에서 박 후보는 41.4%, 윤 후보는 44.6%의 호남득표율을 기록했다.

3선 개헌 후 1971년 4월 실시된 7대 대선에서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후보 등이 출마했다. 호남에서는 김 후보가 58.6%대 32.8%로 박 후보를 앞섰으나 전국적으로는 박 후보가 승리, 3선에 성공했다.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얻어낸 이래 처음 실시된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에는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가 출마하고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갈라 통

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후보로 각각 나섰다. 여기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지역대결 구도로 선거가 흘러갔다. 결과 노태우의 승리로 끝났다. 호남에서는 김대중 86.2%, 노태우 9.6%, 김영삼 1.1%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1992년 실시된 제14대 대선에서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에 맞서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등이 나섰다. 김영삼 후보가 승리,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득표율이 김대중 90.9%, 김영삼 4.2%인 반면 영남에서는 김영삼 68.0%, 김대중 10.0%를 기록, 극심한 지역대결 구도를 보였다.

5년 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정계 복귀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김대중 후보가 여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 선거에서 호남은 김대중 후보에게 92.9%의 몰표를 주었지만, 이회창 후보에게 3.3%만 줬다.

16대 대선은 개혁 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이룬 강금희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당선에 진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대결했다. 노

후보는 갑작스런 지지율 저하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며 결국 승리했다. 이 대선에서 호남은 영남출신 노 후보에게 92.3%라는 몰표를 줬다. 반면, 이 후보의 호남 득표율은 4.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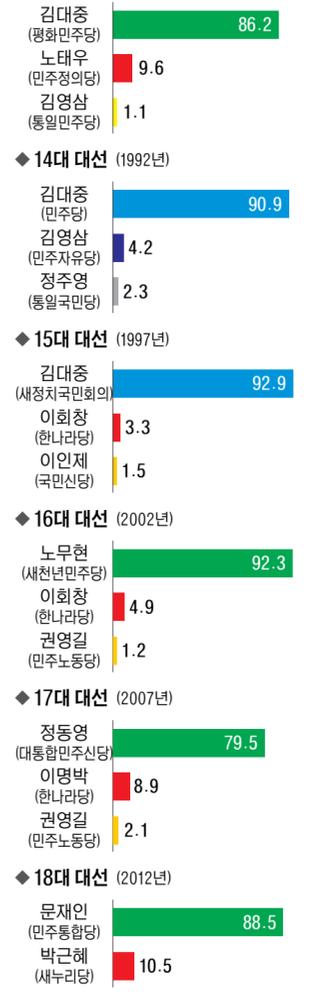
2007년 17대 대선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이 출마했다. 참여정부의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진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잘 할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승리, 권좌는 보수정권으로 넘어갔다. 호남에서 정 후보는 79.5%, 이 후보는 8.9%를 획득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각종 게이트로 여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18대 대선은 야당 입장에서 정권교체의 호기였으나 선거전략에서 밀리면서 또다시 패배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양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범야권 후보가 된 부산 출신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88.5%를 득표했음에도 전국적으로는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 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게했다. 박 후보는 호남에서 10.5%를 득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대 대선 주요 후보 호남 득표율

(단위:%)



'호남 표심'은 역대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50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며 집권에 성공하자 구 전남도청 광장 분수대 주변에 모인 유권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왼쪽) 제16대 대선에서 호남 몰표를 기반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시절인 2007년 5월 19일 무등산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19대 대선과 호남

19대 대선의 조기 선거가 현실화된다면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권 창출의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지지 후보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은 여야의 분열구도 속에서 조기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권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호남 민심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조망해본다.

◇호남 민심 구체화 시기는=호남 민심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조기 대선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체적 흐름이 나타나

초반 압도적 지지 후보 없어... '정권교체' 전략적 선택 주목

는 시기는 '2말3초'(2월말~3월초)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제3지대 구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도 거의 확정되면서 호남 민심이 보다 구체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결집 여부는 대선 구도의 유효성이 과거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막판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 재현되나=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조기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진다면 과거와 같은 결집은 어려울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다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호남 표심의 결집력은 60~70%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공동정부나 연립정부가 현실화된다면 과거와 같은 90%대에 육박하는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일대일 대결 구도가 펼쳐진다면 호남 민심의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여부=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일단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다. 여기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정권

창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을 매개로 하는 연립 정부나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야권 공동 정부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야권 공동정부나 연립정부 구성을 호남 민심이 결단한다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민주당 후보가 제3지대 후보를 호남 민심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조기 대선의 결정적 변수는=여권의 몰락으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야권도 분열돼 있다는 점에서 제3지대의 성공적인 구축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막판까지 지지 후보 두고 고심 거듭할 듯 호남주도 정권창출 가능성에 안팎 주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층을 결집, 여권 후보로 나선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나 연립 정부 구성을 통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제3지대에서 안철수 의원 등이 대표 주자로 나선다면 야권 성향 후보 간의 전면전이 펼쳐질 수 있다. 호남 민심은 대선 변수에 폭발력을 더할 전망이다.

당장, 호남 민심은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체론'을 뒤흔들 수 있다. 또 국민의당의 대선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 공동정부와 연립 정부 구성의 키도 호남 민심이 쥐고 있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홍콩 · 마카오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홍콩 · 마카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 062)228-1199

캐주얼 CHPF07

초특가 필수기

홍콩·마카오·심천 4일·5일

8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 마카오 항공(NX 항공)

🍷 특식 3회(광동식, 암자식, 한식)

클래식 CHPF05

동반 아동 할인

홍콩(디즈니랜드)·마카오 4일·5일

1,399,000원~

현지 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2월 18일~25일 매주 수/토 총 3회

✈ 마카오 항공(NX 항공)

🍷 특식 3회(포르투갈식, 점토담섬, 한식)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상품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객보험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벤트 시종료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인 보증보험 22억 (한민한인)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